

↘ 그런데 이때는 정히 춘삼월 春三月 좋은 시절이라 백화는 만발하고 버드나무 가지에서는 꾀꼬리 노래소리가 이리저리 엽히며 푸른 산 그늘에서는 두견새가 슬피 울어 사람의 심회를 복돋았다. 저마무가 서실의 창에 의지해 앉아 두어잔 술을 마시고 나서는 스스로 탄식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처함에 마땅히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하여 문호門戶를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전함이 장부의 떳떳한 일이어늘, 슬프다, 이 내 몸이 하향촌토遐鄕村土에 묻혀 헛되이 광음光陰을 보내다가 초목과 같이 스러지면 그 뉘라서 저마무 이 세상에 났던 줄을 알리오’ 하고 차탄하기를 마지 않으니 그 부인 왕씨王氏가 위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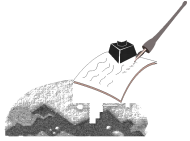
“부귀공명富貴功名과 화복길흉禍福吉凶은 모두 하늘이 마련하신 바라 어찌 인력으로 하리이까. 옛적에 이윤伊尹(은殷나라의 어진 재상으로 이름은 지擊이고 윤尹은 시호이다. 신야莘野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탕왕湯王이 세 번이나 찾아와 초빙하므로 벼슬에 나가 탕왕이 천하를 차지하도록 도왔으며 탕은 그를 아형阿衡이라 불렀다. 탕이 죽은 후 그 손자 태갑太甲이 무도하므로 동궁桐宮으로 축출했다가 뉘우친 뒤 서울 밖외로 돌아오게 했다)은 신야莘野에서 밭갈다가 성탕成湯을 만나 은나라 정승이 되었삽고 부열傳說(은 또는 상商나라 고종高宗 때의 명재상으로 고종의 꿈에 나타나 기용했다 하며 열명說命 3편을 지었다. 고종이 그를 쓰면서 큰가뭄이 들면 그를 장마비로 삼겠다 한 데서 가뭄 끝 단비를 부열림傳說霖이라 하는 말도 생겼다)은 담을 쌓다가 고종의 꿈에 보여 왕업王業을 증흥하고 강태공姜太公(주周나라 동해東海 사람으로 자는 자아子牙, 태공은 존칭이며 그 선대가 여묘 땅에 봉해져 여상呂尙, 여공呂公 등으로 불리고 문왕文王의 스승이 되어 상보尙父, 사상보師尙父, 태공망太公望 등으로 불림. 노년까지 낚시질을 하며 숨어 살았는데 위수渭水로 사냥나온 문왕을 만나 그 스승이 된 뒤 무왕武王을 도와 천하를 평정한 공으로 제齊 땅을 봉지로 받았다)은 신팔싣先八十을 곤궁하여 위수 가에서 고기를 낚다가 문왕을 만나 주나라 8백 년 홍업洪業을 일으켰으며 관중管仲(춘추시대 제齊나라 영상穎上 사람으로 이름은 이오夷吾, 중은 자, 시호는 경敬이며 포숙아鮑叔牙와의 우정으로 유명하다. 처음에 공자公子 규糾를 섬기다 환공桓公이 되는 소백小白을 섬겨 재상이 되어 중보仲父라 불리며 정사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책과 함께 존왕양이尊王攘夷를 표방하여 환공이 패업을 이루게 했다)은 함거檻

車에 갇혔다가 제한공을 도와 패제후霸諸侯를 하였사오며 백리해百里奚(춘추시대 진秦나라 정승으로 자는 정백井伯, 일설에는 성이 백百, 이름은 해奚, 자가 이리라 한다. 본래 우虞나라 대부大夫였으나 군주의 어리석음을 보고 물러났다가 진에 등용되어 목공穆公을 도와 패업을 이루었는데, 일설에 목공이 양피羊皮 다섯 장으로 그를 속죄시켜 데려왔다 하여 오고대부五十大夫라 부르기도 한다)는 소를 먹이다가 진목공을 만나 상대부上大夫 벼슬을 하였고 만고성인 공부자孔夫子도 철환천하轍環天下(은세상 각처를 두루 돌아다님)하시다가 진채陳蔡(춘추시대 하남성河南省 회양淮陽과 안휘성安徽省 박주똥州 일대에 있던 제후국 진陳나라와 주周나라 제후국이었던 하남성 상채上蔡·신채新蔡 지역의 채 땅) 사이에서 곤困하시며 아성인亞聖人 맹부자孟夫子는 양혜왕梁惠王(전국시대 위魏나라 혜왕惠王으로 무후武侯의 아들이며 성명은 필영畢중이다. 진秦에게 패해 도읍을 안읍安邑에서 대량大梁으로 옮기고 왕을 자칭하여 양혜왕으로 불린다)과 제선왕齊宣王(전국시대 제齊나라 군주로 성은 전田 이름은 벽강疆이며 시호가 선宣이어서 선왕이라 한다. 위왕威王의 아들로 어진 재상과 명장을 발탁해 한때 연燕을 점령하고 초楚와 연합해 진秦·한韓·위魏를 크게 물리쳤으며 직하稷下에 학궁學宮을 열고 70여 학자를 상대부로 삼아 학문을 진작시켰다)을 보시었으나 왕도王道를 능히 행치 못하시고, 굴원屈原(전국시대 초楚의 현자로 이름은 평平, 원原은 자이며 호는 영균靈均이다. 회왕懷王 때 삼려대부三閭大夫로 정사를 주관하여 임금의 신임을 받았으나 다른 대부들의 참소를 받아 이소부離騷賦를 지어 왕이 깨닫기를 바랐고 양왕襄王 때 다시 참소를 받아 장사長沙로 유배되자 어부사漁父辭 등 여러 글을 지어 회포를 밝히고 먹라스혈羅水에 투신했다) 같은 충신으로도 초회왕楚懷王(전국시대 초의 왕으로 위왕威王의 아들이고 이름은 옹기熊槐, 회懷는 시호이다. 진秦의 소왕昭王과 혼인관계를 맺은 뒤 굴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소왕과 회동하러 갔다가 억류되어 죽었다)이 곧은 말을 쓰지 아니함에 먹라스혈羅水(호남성湖南省 동북부에 있는 상강湘江의 지류로, 먹수혈水는 동서 두 곳에서 발원하여 평강현平江縣 서쪽에서 나수羅水와 합류하며 이곳을 먹라연혈羅淵 또는 굴원이 죽었다 하여 굴담屈潭으로도 부른다)에 빠졌으며 오자서伍子胥(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원員, 자서는 자이며 사奢의 아들 상尙의 아우인데 부형이 모두 초

능동칼럼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

權 在 琮
주간



공영방송 KBS는 ‘우리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낱말의 뜻을 올바르게 풀어보기도 하고 올바른 쓰임을 밝혀 우리말의 격조를 높이는 데 퀴즈의 형식을 빌고 있다. 공영방송이 그 소임을 다하는 것 같아 좋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말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의사소통을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눈 말을 생각해보면 자기 표현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것을 알고는 후회할 때가 많다.

우리말 사전을 들추어 본 사람은 누구나 같은 생각이겠지만 무심코 쓰는 일상의 말이 거의 한자어에서 온 것임을 아는 순간 저속 놀란다. 평소엔 순수 우리말이라 생각하던 낱말도 한자에서 온 것을 알고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무지를 부끄러워한다. 가령 ‘조용히 의 조용은 從容이란 한자어의 차용이고, 먼저란 뜻의 ‘우선 은 于先이고, 뜻밖에 저절로 됨을 뜻하는 ‘우연 은 偶然이란 한자어이다. 거기에다 하나의 음으로 여러 뜻을 나타내는 말이 또한 부지기수다.

가령 ‘우의 만 말을 예로 들면, 추운 겨울에 소에게 입히는 덕석을 뜻하는 ‘우의牛衣’ 친구 사의의 정분인 ‘우의友誼’, 어떤 의미를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물에 빗대어 뜻하는 ‘우의寓意’, 마음씨가 부드러우면서도 굳셈을 표현하는 ‘우의優毅’, 소의 병을 고치는 의사를 말하는 ‘우의牛醫’, 새의 깃털로

만든 옷 ‘우의羽衣’, 교미기의 여왕개미와 수캐미를 뜻하는 ‘우의羽蟻’, 비옷의 ‘우의雨衣’가 사전에 나와 있다. 그러나 한자를 알면 사전에 없는 낱말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 가령 雨意·愚意·友意·又意·尤意·友衣.... 등등의 표현으로 그 뜻을 새길 수 있다.

한글전용을 부르짖는 사람은 이럴 경우 문맥에서 그 뜻을 새기면 된다고 우기지만 그것도 한자를 알아서 그 낱말을 이해할 때 문맥도 정확히 이해하여 올바른 뜻을 가늠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국어의 어휘는 순수한 고유어와 수많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여 수준 높은 국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 안의 한자 어휘 학습이 필수적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말의 70%정도가 한자에서 차용했다고 한다. 이는 한자가 당연히 우리 문자의 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직시하고 인식해야한다. 물론 한자와 한글에는 각기 특성상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서로의 장점을 취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국한문을 혼용한다면 이상적인 문자 체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예를 보듯이 소리글자의 단점인 축약력縮約力을 뜻글자인 한자의 압축으로 보완한다면 낱말의 조어造語가 훨씬 자유롭게 되어 사용하는 어휘가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교육은 국어교육의 지름길이 될 것이고 나아가 모든 교과목에서 그 효과를 높

이는 요체要諦가 될 것이 틀림없다. 어차피 모국어든 외국어든 언어는 창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이므로 어린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목표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필자는 30여 년 전에 고 남광우南廣祐 교수가 임종을 앞두고 문교부장관에게 한자교육의 필요를 유서로 남기면서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을 하고 모든 교과서를 국한혼용으로 할 것을 건의한 기사를 읽은 일이 있다. 이같은 선각자들은 이미 1969년에 한국어문 교육연구회韓國語文教育研究會를 조직하여 국한문 혼용표기 생활을 주창하고, 한자교육을 통한 국어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국한문 분야에 관한 학술적 연구도 병행해 왔다. 또 최근 소설가 권광옥은 ‘한자도 우리글이란 책을 발간하여 우리글의 나팔바를 밝혔다. 국가가 하지 않은 일을 뒀안길에서 묵묵히 하면서 선각의 길을 걸어온 표본이다. 참으로 큰일을 했다.

지난 1월 18일 일간신문에서 학부모 89%, 교사 77%가 원하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이란 제하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부에 냈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이는 만시지탄이다. 학부모는 한자교육 필요성을 진작에 알고 ‘마법천자문’이라는 만화책을 130만부나 샀고 공인한자급수시험의 응시자 150만 중 60%가 초·중·고생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공교육에선 침묵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북한에서도 우리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고등중학 1학년부터 300자의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 게다가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은 이미 우리무역의 제1의 중요국가가 되어버렸다.

의 평왕平王에게 죽자 오뎨로 망명하여 오왕을 도와 초를 쳐 원수를 갚았다. 그러나 뒤에 태재太宰 비 의 모함으로 죽었다)의 열절烈節로도 촉루검屬鏤劍(명검의 이름인데 오왕이 오자서의 충모忠謀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칼을 주어 목을 찔러 죽게 했다)을 만났으며 낙양洛陽(하남성河南省 낙양시洛陽市 동북쪽에 있던 옛 도읍지로 주周나라 주공周公이 낙읍邠을 경영하여 성주성成周城을 건설했는데 전국시대에는 낙양 陽, 후한 이후 낙양洛陽이라 했다. 낙수洛水의 북안北岸이란 뜻이며 낙읍洛邑·낙경洛京·낙도洛都·낙사洛師·낙성洛城이라고도 하는데 후한 외에 동주東周·서진西晉·북위北魏·수隋, 오대五代의 수

도였다)의 재자才子 가의賈誼(한漢나라 초 낙양 사람으로 가태부賈太傅·가장사賈長沙·가생賈生이라고도 하며 문재로 이름을 날려 약관에 박사博士가 되고 1년만에 대종대부大中大夫가 되어 율령·관제·예악 등 제도를 개정하고 시정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많은 의견을 상주하였다. 주말周勃·관영灌창 등의 시기로 문제文帝 때 장사왕태부長沙王太傅로 복귀하였으나 불우함을 울분하다 죽었다)도 장사長沙(호남성湖南省 장사시長沙市)에 굴屈하였고 양홍梁鴻(후한의 부풍扶風 평릉平陵 사람으로 자는 백란伯鸞이며 현처 맹광孟光과 더불어 농사와 길쌈으로 살면서 부부가 서로 손처럼 공경한 일로 유명하다. 시정時政을 풍

자한 시 오희가五噫歌가 필화를 일으켜 장제章帝가 잡으려 하자 제齊·노魯, 오뎨 땅으로 피해 다녔다) 같은 어진 사람도 해곡海曲(연해 지역이나 바다 모퉁이의 만)에 귀양갔사오니 궁하고 현달함과 고통스럽고 즐거운 것을 터럭만큼도 사람의 마음대로 못하옵나니 바라건대 군자君子(남편에 대한 경칭)는 부질없이 심사를 상해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소서.” 저마무가 부인의 말을 들으니 더욱 한심하고 분기가 철천徹天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다가 몸을 일으켜 후원後園으로 들어가서는 향안香案(향로나 B대를 올려놓는 탁자)을 베풀어 놓고 한 장의 글을 지어 그 회포懷抱를 설파하니 그 글은 이러하였다.